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왜 세상에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질문에서 ‘왜?’ 라고 끊임없이 힐책하는 세상의 항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신 그분의 삶을 전하는 성경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그분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더욱이 세상에는 채워져야 할 고통의 몫이 있으며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니다. 닥쳐온 고난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세상을 통해서 항상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이 하느님과 궁극적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신비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만, 세상의 고통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1베드 1,6)라고,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콜로 1,24)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금보다 훨씬 값진” 고통을 목숨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복음인은 고통을 넘어 그분의 나라를 희망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곤소곤 이걸 알아두세요』, p.70~71, 장재봉 신부 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samok.cathms.kr>

허무한 부귀영화

(시편 49,2-11)

시작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7번 ‘이 세상 덧없이’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저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주소서.
-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주님,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사랑이 가득 차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49편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49,2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어라.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아, 귀여겨들어라.
- 3 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함께 들어라.
- 4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생각은 슬기롭다.

- 5 나는 잠언에 귀 기울이고
비파 타며 수수께끼를 풀리라.
- 6 나를 뒤쫓는 자들의 악행이 나를 에워쌀 때
그 불행의 날에 내가 왜 두려워하랴?
- 7 자기 재산을 믿으며
재물이 많음을 자랑하는 그들.
- 8 사람이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하느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다.
- 9 그 영혼의 값이 너무나 비싸
언제나 모자란다,
- 10 그가 영원히 살기에는
구령을 아니 보기에는.
- 11 정녕 그는 본다, 지혜로운 이들의 죽음을,
어리석은 자도 미혹한 자도 함께 사라짐을,
그들의 재산을 남들에게 남겨 둔 채로!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감정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내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단지몽(邯鄲之夢)이란 말은 인생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一場春夢)과 같이 허무(虛無)함을 이르는 고사성어입니다. 당나라 현종(玄宗) 때의 이야기입니다. 도사 여옹이 한단(邯鄲:河北省所在)의 한 주막에서 쉬고 있는데 행색이 초라한 젊은이가 옆에 와 앉더니 산둥(山東)에 사는 노생(盧生)이라며 신세 한탄을 하고 나서는 깜박깜박 졸기 시작했습니다. 도사 여옹이 보따리 속에서 양쪽에 구멍이 뚫린 도자기베개를 꺼내 주자 노생은 그것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노생이 꿈속에서 점점 커지는 그 베개의 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노생은 최 씨(崔氏)로서 명문인 그 집 딸과 결혼하고 과거에 급제한 뒤 벼슬길에 나아가 순조롭게 승진했습니다.

10년간 노생은 황제를 잘 보필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한 명재상으로 이름을 높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변방의 장군과 결탁하여 모반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노생과 함께 잡힌 사람들은 모두 처형당했으나 그는 환관(宦官)이 힘써 준 덕분에 사형을 면하고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수년 후 죄를 뒤집어쓴 것임이 밝혀지자 황제는 노생에게 직접 벼슬을 내리고 많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후 노생은 권문세가(權門勢家)와 혼인하고 고관이 된 다섯 아들과 열 명의 손자를 거느리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다가 황제의 어의(御醫)가 지켜보는 가운데 80년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노생이 깨어보니 허무한 꿈이었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여옹이

앉아 있었고 주막집 주인이 짓고 있던 밥도 아직 다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생을 바라보고 있던 도사 여옹은 웃으며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라네.”라고 말하자 노생은 여옹에게 공손히 작별 인사를 하고 한단을 떠났습니다.

노생(盧生)이 한단(邯鄲) 땅에서 여옹(呂翁)의 베개를 빌려서 잠을 자며 80년간의 영화로운 꿈을 꾸었는데, 깨고 보니 밥을 짓는 사이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 한단지몽(邯鄲之夢)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8번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안에 우리 모두 한 형제 |

- 상평동본당 지역부장 남돌점 데레사 -

진주시 도동은 남강의 동쪽 모래밭 가에 위치하여 한겨울이면 더욱 황량했고, 여름에는 폭우와 태풍으로 물바다가 되곤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남강 독이 세워지면서 택지가 조성되어 깔끔한 새 동네가 들어섰고, 상평동본당이 옥봉동본당에서 분가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올해로 어느새 40년이 가까워져 오니,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져서 본당을 분가시킨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주변 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조금은 단출해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혁신도시에 대단위로 지어진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신자 수가 줄어들고, 이제는 노년층이 대다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 신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비신자 권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공동체는 5개 구역에 총 16개 반이 있으며, 구역별로 전례 봉사를 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성당 청소를 합니다. 모든 모임이 열성적으로 활동하시지만, 그 가운데 3구역 4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2시에 각 가정을 순회하며 소공동체모임을 하고 있고, 반장의 적극적인 참석 독려로

참여 인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반원들도 어르신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공감하며, 특히 출석이 낮은 자매님들이 모임에 자주 참석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성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함께 기도하는 활동을 해나가하고자 합니다. 본당 내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선교활동도 활발히 펼쳐나가 넉넉한 결실을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라’(1티모 6,11 참고)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려는 상평동본당 식구들에게 하느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